

전자업계 대일역조 타개방안 적극 강구

날로 증가하고 있는 대일 무역 역조 해소를 위해 전자산업계가 기초 소재 수입 의존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자산업계 협회와 단체를 중심으로 대기업의 국내 조달 비중 확대와 대체 기술의 조기 국산화 등에 힘을 모은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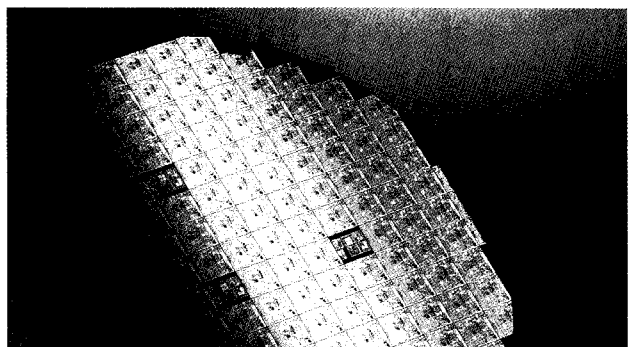
대일 무역적자는 1965년 수교 이래 매년 불어나 올해는 사상 최대 규모인 350억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3분의 2는 부품소재가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돼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군이 세계 시장을 석권한 과실 상당부분 일본에 넘겨주고 있다.

전자관련협회는 산업군별로 핵심 수입 소재를 선별, 제품 경쟁력을 확보한 기초 소재의 국내 조달 비중을 확대하거나 대체 기술 조기 개발을 위해 민관 공동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기술 난도가 높거나 국산화의 실효성이 없는 핵심 소재는 해외 기업과 합작해 국내 생산거점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다.

전자회로업계는 대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 가운데 반도체용 범용 패키지(CSP) 기판의 국내 조달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삼성, LG, 하이닉스 등 대기업에 건의할 계획이다. 반도체용 범용 CSP 기판은 CPU와 달리 삼성전자, 심텍, 대덕전자 등 국내 주요 PCB 업체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제품이다. 삼성전자, LG전자, 하이닉스 등이 연간 구매하는 범용 CSP 기판 물량만 6000억원을 웃도는 가운데 대일 수입 비중은 6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게 업계의 추산이다.

반도체업계도 대일 의존도가 높은 품목으로 웨이퍼와 감광액(포토레지스터)을 꼽고 내재화 확대 방안을 강구 중이다. 특히, 웨이퍼는 반도체 생산 재료비 가운데 40% 가까이 차지하는 대표 품목이다. 지난해만 해도 삼성전자·하이닉스는 총 24억달러 가량의 웨이퍼를 구매했고 이 가운데 일본에서 수입한 전체 웨이퍼 물량은 절반이 넘는 14억8000만달러에 이른다. 대일 수입 의존도가 높다 보니 삼성전자는 해외 업체인 실트로닉스와 싱가포르에 합작법인을 설립, 지난 7월 웨이퍼 양산에 들어가기도 했다. LG그룹 계열 실트론에서 구매 물량을 늘리는 대신 해외 자체 조달을 택한 것이다. 감광액은 연간 수입액 규모는 1억9000만달러 정도



지만 이 중 일본 제품 비중이 무려 95%에 육박한다. 관계자는 웨이퍼나 감광액 모두 국내 업계의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다면서 다만 최소한의 규모로 국내 조달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스플레이업계는 LCD 패널의 핵심 소재인 TAC필름·유리원판·편광판·CCFL·액정을 대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다섯 가지 품목으로 선정했다. 이들 소재 가운데 TAC필름·편광판·CCFL의 세 가지 제품은 대체 기술로 국산화가 가능한 만큼 내년부터 민관 공동 R&D 등으로 조기 상용화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기술 난도가 높은 액정·유리원판은 해외 기업을 유치해 기술과 생산시설을 도입, 장기적으로 대일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 최강국으로 부상했지만 여전히 핵심 부품·소재 국산화율은 극히 취약한 것이다. 현 주력산업인 LCD와 PDP는 물론이고 차세대 능동형(AM)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에 이르기까지 특히 대일 의존도가 심각하다. 디스플레이 산업을 국가 주력 산업으로 이어가려면 핵심 부품·소재 국산화에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집중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LCD·PDP·OLED의 3대 디스플레이 패널에 들어가는 53개 핵심 부품·소재 가운데 현재 20개 품목의 국산화율이 2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개 품목 중 LCD용 핵심 부품인 액정을 비롯해 실란트·반사형편광필름·확산판소재 등 총 10개 부품·소재는 아예 국산화율 제로로 전량 외산에 의존한다. PDP는 유리기판을 일본 아사히글라스 등 해외 업체에서 전량 수입한다. 차세대 AM OLED 유리기판도 국산화율 0%로 나타났다. 최근 빠르게 확산되는 터치스크린용 하드코팅 PET 필름도 모두 수입에 의존한다. 디스플레이 분야의 53개 핵심 부품·소재 가운데 22.6%에 이르는 무려 12종의 제품을 전부 해외에서 사다 쓰는 셈이다.

일부 국산화가 진척한 부품·소재 분야의 해외 의존도도 심각하다. 전체 53개 품목 가운데 국산화율 50%를

넘긴 제품은 LCD용 컬러필터를 포함해 20종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LCD용 백라이트유닛(BLU)과 냉음극형광램프(CCFL) 등 기술장벽이 낮은 품목이 대부분이다. 국산화율 70%에 이르는 LCD용 유리기판도 삼성코닝정밀유리가 막대한 로열티를 지급하고 사실상 기술을 코닝에 전적으로 의존해 국산화의 의미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디스플레이 핵심 부품·소재 시장에서 순수 국내 기업은 여전히 찾아보기 드문 실정이다. LCD 업종에서 LG화학·제일모직·삼성전자·매그나칩 등 대기업 관계사가 편광판과 컬러레지스터, 드라이버IC 등을 국산화한 것을 제외하면 전문업체로는 광학필름 분야의 미래나노텍과 CCFL 분야의 우리이티아이 정도가 꼽힌다. LCD·PDP·OLED를 막론하고 일본·유럽계 업체들이 국내 시장을 독식하는 형국이다.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이 지금의 위상에 오른 것은 지난 10년간 양산 경쟁에서 성공한 결과 일뿐이라며 기초 부품·소재 기술을 간과한다면 OLED나 플렉시블, 3차원 등 미래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는 결국 주도권을 잃고 말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들 주력 IT 산업군 외에도 자동차·조선·철강 등의 분야에서도 대일 무역 역조 개선을 위한 자생적인 민간 차원의 자생적인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